



[소비동향] 호주, 카페내 식물성 대체우유 소비 증가세

- 특히 오트 밀크 수요 급증으로 투자 확대 추세



식물성 대체우유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카페에서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900개 이상의 카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페 소비자의 4분의 1이 커피 주문시 식물성 대체우유를 선택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아몬드 우유로 두유와 오트 밀크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트 밀크는 크림과 같은 질감과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년 전 카페 음료 점유율이 0.2%였는데 반해 현재는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카페 음료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호주에서 오트 밀크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물성 대체우유 소비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식물 기반 음료업계의 '우유' 또는 '크림' 등 낙농용어 사용 금지에 대한 낙농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출처 : abc.net.au, 5월 22일자 >

[정책동향] 인도 음료업계, '플라스틱 빨대 퇴출' 유보 요청

-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금지 시행 내년까지 유보 요청



인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음료업계가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구자라트 우유 마케팅 협동조합(GCMMF)은 최대 유업체인 아물(Amul)을 필두로 음료업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지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해당 조합은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의 0.1%도 되지 않은 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종이 빨대를 제조할 능력이 없고 비용이 5-6배 더 비싸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펄스, 코카콜라 등 음료업계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기꺼이 이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며 당국에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 출처 : timesofindia.indiatimes.com, 5월 1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